

대한제국시기 역사 교과서 『대한력스』(1908)의 저술 주체와 저본 문제*

이교은**

〈차 례〉

- 서론
- 헐버트, 오성근과 『대한력스』의 저술 주체
- 『대한력스』와 헐버트의 『한국사』
- 『대한력스』와 정교의 『대동역사』
-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한제국시기 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역사 교과서 『대한력스』(1908)의 저술 주체와 저본에 대한 학설이 상이한 현실에 의문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단군조선기부터 고려기를 포함하는 이 책은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행되었던 여러 역사 교과서 중 유일하게 순국문체로 쓰였고, 1908년 발행되면서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 No.1으로 등록되었다. 이 책의 저술에 대해서는 헐버트가 제자 오성근에게 편찬·역술을 위임했으므로 헐버트의 『한국사』(*History of Korea*, 1905)를 국역한 것이라는 주장과, 독립협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정교의 『대동역사』(大東歷史, 1906)를 국역한 것이라는 상이한 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차 자료와 실제 문헌들을 비교 조사하여 사실을 검증한다. 1장에서는 헐버트 서신과 〈오성근 일기〉를 근거로 이 책의 저술 주체를 논한다. 2장에서는 『대한력스』를 헐버트의 『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0427).

또한 논문 작성에 여러 귀중한 도움이 있었다. 우선 논문을 꼼꼼히 읽고 평가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논찬을 맡아주시고 Mr. Rigg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이영미 선생님, 헐버트의 회귀자료를 수집 및 출판해주신 김동진 헐버트기념사업회 회장님, 〈오성근 일기초〉 자료 입수를 도와주신 독립기념관의 박동윤 학예사님, 〈동사강요〉를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연세대 최재건 교수님, 이해원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학술연구교수,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국사』와 대조하여 시대구분과 서술방식, 인물평의 차이를 논한다. 3장에서는 『대한력스』를 정교의 『대동역사』와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를 논함으로써 이 책의 저본을 규명한다.

[주제어] 대한력스, 대한력사, 대한역사, 오성근, 호머 헐버트, 예수교서회, 역사 교과서

1. 서론

본 연구는 『대한력스』의 저술과 저본에 대한 학설이 상이한 현실에 의문을 품고 1차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책은 단군조선기부터 고려기를 포함하며,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발행된 여러 역사 교과서 중 하나였다. 1908년 발행 당시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 1번으로 등록되었다.¹⁾ 이 시리즈의 1번은 본래 『초학디지』였지만 『대한력스』발행 직후 순서가 재편된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시리즈에서 무척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²⁾ 그 이유는 『대한력스』가 1895~1910년 사이 발행된 역사 교과서 22종 중에서 유일하게 순국문체로 저술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³⁾ 책의 서문에서 밝힌 대로 “북미합중국 문학박사 헐버트 씨가 한국의 국문역사의 전무함을 근심하여” 제자 오성근에게 역사 교과서의 편찬·역술을 위임했다⁴⁾는 이 책은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전통적 교육에서 벗어나 근대식 국민 교육을 지향하며 한글 전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헐버트의 의지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오성근은 누구인가? 그는 관립중학교 학생으로서 헐버트를 만나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오성근은 자신이 헐버트의

1) 이고은,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배경과 전모」, 『대동문화연구』 제1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3, 261쪽.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는 예수교서회(조선성교서회의 후신) 이사였던 헐버트가 1906년 서회에 기금을 위탁하기로 계약을 맺고 기획한 일련의 교과서들로 역사, 지리, 언어, 과학 등 13종이 최근 확인되었다.

2) 이고은, 위 논문 261-262쪽 <표 1> 참고.

3) 강명희, 「韓末『대한력스』의 分析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0쪽 <표 5>에 당시 발행된 역사 교과서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강명희는 이 중에서 『대한력스』만이 순국문체였음을 강조했다.

4) 오성근, 호머 헐버트, 『대한력스』, 발행자불명, 1908.

부탁을 받아 “칠팔년의 광음을 허비하여… 단군기자 이래 4000년의 역대 정사를 대강 편찬하여 우리나라 남녀노유로 하여금 보고 널리 배우기를 희망해 특별히 순국문으로 역술하였다”고 기록했다. 여기서 오성근이 “편찬”과 “역술”을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오성근은 어떤 사료를 기반으로 이 책을 편찬했던 걸까? 이미 『한국사』(History of Korea)를 저술했던 헐버트와 공동으로 초안을 편찬한 뒤 오성근이 번역만 맡았던 걸까?

이렇듯 서문에서 오성근 자신이 편찬과 역술을 담당했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에는 이 책의 저술 주체에 대해, 또한 어떤 책을 번역했다는 것인지 그 저본에 대해 상이한 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동진과 김권정은 『대한력스』가 외국인에 의한 저술, 즉 헐버트의 『한국사』(*History of Korea*) 1, 2부(단군-고려)를 번역한 것이라고 보았다.⁵⁾ 또한 『대한력스』를 분석해 석사학위논문을 쓴 강명희도 『대한력스』 헐버트 『한국사』의 국문판이라고 못박으며 “이 책이 헐버트와 오성근의 공저로 알려져 있으나 헐버트의 국한문 실력이 뛰어나고 한국사·한국어에 대한 논문 및 저서가 많았던 점으로 보아 저자는 헐버트이고 오성근은 헐버트의 국문 초고를 가필, 수정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⁶⁾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력스』를 헐버트가 저술한 역사서 중 하나로 본다(아래 표 1 참고). 『대한력스』를 발행했던 출판사 예수교서회의 서목도 이 책을 헐버트의 한국사와 연결할 만한 소지를 제공한다. 책의 영문명으로 “History of Korea, By Rev. H. B. Hulbert and O Seung Kon (Hulbert Series)”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⁷⁾ 이것을 보면 『대한력스』는 헐버트의 『한국사』를 순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책의 실물 텍스트를 대조해 보면 과연 그러

5) 김권정,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 역사공간, 2016; 김동진,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2019.

6) 강명희, 앞의 논문, 2, 39. 현재 『대한력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명희가 유일하다.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되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중등교과동국사략, 그리고 현행국사교과서와 비교했다. 역사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교과서로서 담당했던 기능에 집중한 듯하다.

7)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1911, p. 48.

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체제와 내용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표 1〉 현재 헐버트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서

서명	大東記年 ⁸⁾	History of Korea	Passing of Korea	대한력사
간행 연도	1903	1905	1906	1908
대상 시대	조선	1부 고대(단군-삼국, 13장) 2부 중세(고려, 13장) 3부 근대(조선-1897, 28장)	대한제국기 (1897-1905)	단군-고려 (6권)
언어	한문	영문	영문	순국문
저자	헐버트, 윤기진	헐버트	헐버트	헐버트, 오성근

또 다른 설로 『대한력스』는 헐버트와 오성근이 정교(鄭喬, 1859~1925)의 『대동역사』(大東歷史)를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라는 역사학자 조동걸의 견해가 있다. 현재 『대한력스』를 소장 중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그의 설명을 근거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⁹⁾ 조동걸에 의하면 『대한력스』는 한국 근대사학 초기 계몽주의 역사학의 하나이며 “정교의 『대동역사』를 거의 번역한 내용... 고대사의 자주성 주장과 마한정통설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¹⁰⁾ 하지만 이러한 설명도 온전하지는 못하는데, 정교의 『대동역사』는 단군-통일신라(B.C. 2333- A.D. 935)까지만 다루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대한력스』 5-7권에 해당되는 ‘고려기(高麗記)’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한력스』의 저술 주체와 저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8) 이 책 『大東記年』 또한 저술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는 이 책의 저자가 윤기진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김동진은 헐버트 자료와 황현의 <매천야록>을 근거로 헐버트가 『大東記年』을 저술했다고 본다(김동진, 앞의 책, 221쪽). 헐버트도 서신에서 “My Korean History in Chinese”라면서 윤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권정은 이 책이 헐버트의 *History of Korea* 3부를 번역한 것이라 보았다(김권정, 앞의 책, 61쪽).

9)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142> (2025년 1월 3일 접속)

10) 조동걸, 『우사 조동걸 전집』 14, 역사공간, 2011. (KRPIA 온라인버전 2025년 1월 3일 접속)

11) 오늘날의 단군조선 연대와 다르지만 이 책에서 B.C. 2333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으므로 그대로 표기했다.

- 1) 오성근이 험버트의 위임을 받아 편찬·역술했다는 『대한력스』는 어떤 자료를 저본으로 하는가? 험버트의 『한국사』를 번역한 것인가, 아니면 정교의 『대동역사』를 번역한 것인가?
- 2) 오성근이 이 책을 편찬·역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에도 험버트를 이 책의 저자로 보는 것이 옳은가?

위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우선 험버트 서신과 오성근 일기 등 1차 자료를 검토하여 저술 주체와 배경을 확인한다. 그 뒤에 『대한력스』와 험버트의 『한국사』를 대조하여 전자가 후자의 번역본이라는 기존 주장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력스』와 정교의 『대동역사』를 대조하여 저본관계를 검증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한력스』내용에 대한 역사 비평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험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일부로서 『대한력스』의 저술 과정을 추적하여 기존의 불분명했던 저술 주체 및 저본 문제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편역자 오성근에 대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대한력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 그러한 문제를 정리해 둔다면 향후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험버트, 오성근과 『대한력스』의 저술 주체

전근대기를 막론하고 얼마 전까지도 많은 저술이 권위적 저자에 기대어 출판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작품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 실제 저자가 아니더라도 권위자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던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내한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출판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서, 한국인 필자와 역자들이 선교사를 도와 저술한 것이 선교사 이름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¹²⁾ 그러나 개신교계의 대표적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의 100년사를 집필한 이장식이 지적한 대로, 이

런 현상이 “서적의 권위를 증명해 독자들의 신뢰를 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¹³⁾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개화기 지식생산에 있어 출판자본과 의사 결정권을 거의 독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지나치게 추종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며, 이 문제를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기를 촉구해왔다.¹⁴⁾ 이것은 오늘날의 잣대로 과거를 가늠하려는 오류로 보이기 쉽지만 그보단 과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특히 선교사들의 문서사업을 보조했던 한국인 조력자들의 숨은 역할은 온전히 드러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대한력스』의 저술 주체를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헐버트를 저자로 여기는 견해를 살펴보자. 김동진은 헐버트가 미국으로 귀국해 스프링필드에 거주할 당시 러그 씨(Mr. Rugg)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헐버트가 『대한력스』를 저술했다고 본다.¹⁵⁾ 헐버트가 이 편지에서 교과서 시리즈를 언급하며 그중 두 권에 대해 “내가 저자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권이 『사민필지』와 『대한력스』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아래 일부를 인용한다.

“헐버트 시리즈 또는 학교 교과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시리즈는 제가 자금을 대기는 했지만 그중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자라고 할 수 있는(which I may be said to be the author) 두 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민필지』(Geographical Gazetteer)이고...(중략)... 다른 하나는 기원전 2334년부터 서기 1392년까지 한국의 고대와 중세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이 판본은 특이한 사연이 있는데, 일본이 이 나라를 장악했을 때 그들은 한글

12) 이 문제는 일찍이 연희 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의 한치진 교수가 제기한 바 있다. C. C. Han, “Prospects of the Christian Literature Movement,” *Korea Mission Field* (July 1930): 147-149.

13) 이장식, 『대한기독교서회 백년사』, 대한기독교서회, 1984, 209쪽.

14) 이교은, 「한·중 기독교 지식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85-87쪽.

15) 김동진, 『파란눈의 한국혼 헐버트』, 참좋은친구, 2010, 91쪽에 편지 전문 이미지가 실려 있다.

로 쓰인 한국사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교서회(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를 통해 판매하려 했던 수천 권의 책들을 그들이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인용문은 필자 번역]

위 인용문에서 헐버트 시리즈에 해당하는 교과서, “기원전 2334년부터 서기 1392년까지 한국의 고대와 중세 역사를 다룬 책 ‘이자 “한글로 쓰인 한국사”는 『대한력스』임이 분명하다. 김동진은 여기서 헐버트의 문장 “which I may be said to be the author”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를 『대한력스』의 저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이 편지를 쓰던 헐버트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편지의 수신자 러그 씨는 먼저 헐버트에게 편지를 보내 코리아 리뷰(*Korea Review*, 이하 리뷰)의 과월호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헐버트의 교과서 시리즈에 대해 문의한 상태다. 이에 헐버트는 “1902년 발행된 리뷰 열 권을 챙겨 보내줄 것이며, 교과서 시리즈 중 내가 썼다고 할 만한 2종을 보내주겠다”고 회신하는 상황이다. 이 러그 씨는 인물이 김동진의 견해대로 헐버트의 친구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필자는 미국의 언론계 또는 교육계 인사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¹⁶⁾ 당시 헐버트는 미국에서 한국 전문가로 알려지기를 원했으므로,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두 교과서의 저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해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다.

더불어 헐버트가 모교 다트머스 대학에 제출한 ‘졸업 후 신상기록부(Post Graduate Data)’에 『대한력스』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¹⁷⁾ 헐버트는 여기에 그간 자신이 저술하거나 관여했던 모든 출판물, 즉 두 월간지(*Korean Repository*, *Korea Review*)와 “사민필지(First Geography Gageeteer in native Korean 1892),” “대동기년(History of Korea Present

16) 미국의 교육가 해롤드 러그(Harold Rugg, 1886-1960)일 개연성이 크다. 헐버트의 모교인 다트머스대학교를 졸업해 헐버트와 동문 관계이고, 일리노이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후 시카고대, 컬럼비아대에서 가르쳤다. 무엇보다 이 인물도 교과서 시리즈를 집필했다는 점이 개연성을 높인다. https://en.wikipedia.org/wiki/Harold_Rugg

17) 김동진, 앞의 책, 365쪽에 이 자료의 이미지가 있다.

Dynasty in Chinese 1899),” “한국사(History of Korea in English 2 vol.),”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1906),” 센추리(Century)사에 투고했던 기사 두 편,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를 비교한 논문, 그리고 “헨버트 교과서 시리즈 15권”을 적었다. 이 중에서 헨버트의 한국사 관련 저술로 영어 두 권, 중국어 한 권이 확인되지만 순국문체인 『대한력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글 전용을 강조했던 그가 정말로 『대한력스』를 저술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반면 오성근은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대한력스』를 편찬 및 역술했음을 일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의 번역 및 출판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들이 남긴 기록은 희귀한 만큼 <오성근 일기초>는 소중한 연구자료이다.¹⁸⁾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이 자료를 조사하던 중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중요한 행적을 발견했다. 대표적인 것이 1901-1906년 사이 오성근이 헨버트의 리뷰사에서 근무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오성근은 『대한삼십년외교사』 저술에 관여했는데, 이 책은 헨버트 시리즈의 일종으로 발행될 예정이었다. 그 외에 헨버트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김규식과 함께 동지문예관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사실 등을 기록해 두었다. 다음 장의 <그림 1>에서 보이듯 그의 일기 대부분이 국한문체로 쓰였고, 일부 선교사들과 관련된 일화는 영어로 기술해둔 것을 보면 오성근은 당대 지식인 중에서도 언어 역량이 상당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헨버트가 리뷰사에 오성근을 고용했던 이유도 저술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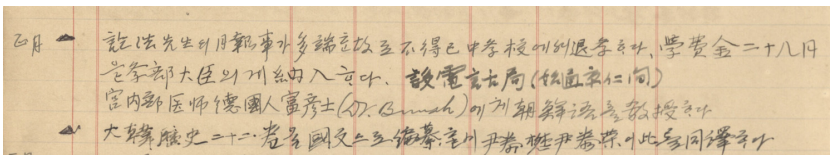
여러 기록 중 먼저 『대한력스』 저술의 배경으로서, 오성근이 리뷰사에 근무했던 기록을 살펴보자. “코리아 리뷰 1901년 1월부터 1906년 12월까지 헨버트 씨와 내가 72부를 인쇄했다.”¹⁹⁾ 오성근은 월간지였던 리뷰가 1901년 1월부터 발행되었지만 자신은 그해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리뷰사가

18) <오성근일기초>는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19) “Korea Review printed from Jan, 1901 to Dec, 1906, 72 copies by Mr. Hulbert and I” 오성근, <오성근일기초> 1901년 부분. 이 문장만 붉은 글씨로 쓰였고 그 아래 헨버트의 가족 이름과 미국 스프링필드 주소가 쓰여진 종이를 덧댄 것으로 보아 나중에 이 부분을 추가 기록한 듯하다.

장동(長洞)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놀랍게도 그는 리뷰사에 근무하기 위해 이듬해(1902년) 관립중학교를 자퇴하기까지 했다. “홀범선생[헐버트의 한자 이름]의 월보사가 다단한고로 부득이 중학교에서 퇴학하다... 학비금 이십팔원을 학부대신에게 납입하다.”(<그림 1> 첫째-둘째줄) 그리고 수년이 지난 1906년 3월 일기에는 “배재 인쇄소에서 명함을 인쇄했다. 오성근, 코리아 리뷰사 보조원 (Print a name card from Pai Chai Press, Oh Sungkun, assistant of The Korea Review)”이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헐버트의 월보 『리뷰』 간행에서 한국인들의 역할에 주목했던 이영미는 오성근이 1906년호에 기사 두 편을 썼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냈다.²⁰⁾ 하지만 오성근이 리뷰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월보의 발행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다. 헐버트의 출판과 저술에 있어 오성근의 역할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대한력스』 저술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자. 1902년과 1906년, 두 번의 기록이 존재한다. 먼저 오성근이 중학교를 그만두던 1902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다. “대한력사 이십이권을 국문으로 편찬할새 윤태무(尹泰懋), 윤태영(尹泰榮)이 그것을 함께 번역하다.”(<그림 1> 마지막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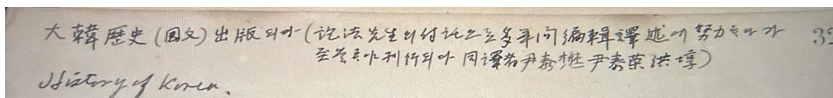
<그림 1> 오성근 일기 일부

여기서 언급된 윤태무는 오성근의 관립중학교 동기였으며, 자퇴한 오성근과 달리 끝까지 학업을 마쳤다. 1904년 졸업과 동시에 관립중학교 교관으

20)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60, 한국 역사민속학회, 2021, 155-156쪽.

로 임용되었고, 1906년 8월 중학교가 해산될 때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근속했던 드문 인물이었다.²¹⁾ 윤태영은 윤태무의 형제로 추측되지만 관련 정보를 찾지 못했다. 어쨌든 오성근과 윤태무, 험버트 세 사람의 관계가 관립중학교에서 시작되어 『대한력스』 저술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1906년, 오성근은 일기에 『대한력스』가 출판되었음을 기록했다. 이전에 언급했던 동역자 2인 외에 홍 준(洪埈)이라는 인물이 새로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정보도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대한력사(국문) 출판되다. (험법선생의 부탁으로 다년간 편찬역술에 노력하다가 지[인식불가]하여 간행되다. 동역자 윤태무, 윤태영, 홍준) History of Korea.” (<그림 2> 참고).



<그림 2> 오성근 일기 일부

오성근의 기록대로 1906년에 『대한력스』 초판이 간행되었다면, 험버트 교과서 시리즈로 편입되기까지 2년쯤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험버트 시리즈로서 『대한력스』의 간행은 190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원래 험버트 시리즈의 1번은 밀러 부인의 『초학디지』였다. 그런데 1908년에 『대한력스』가 등장하면서 시리즈의 일련번호가 재편성되었고, 이 책이 1번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아마 당시에 유일했던 순 한글 역사 교과서라는 희소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당시 한국 사회를 추동했던 애국계몽운동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연하자면, 험버트는 1905-6년 사이 교과서 시리

21) 여인화, 「大韓帝國時期 官立中學校의 教育實態」,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989, 33-34쪽. 오성근과 윤태무 두 사람은 관립중학교 학년시험에서 함께 우등했다는 기록이 대한제국관보에서도 확인된다. 대한제국관보 제 2011호 光武五年十月七日 月曜(1901년 10월 07일) “中學校學年試驗優等”

즈를 기획했고 그것을 발행할 출판사로서 예수교서회와 위탁계약을 맺은 뒤 사비를 투자하여 책의 인쇄비와 발행비를 부담했다.²²⁾ 반면 서회는 시리즈의 발행과 재고관리, 유통, 회계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서회에서는 외부의 위탁판매 서적이라도 자체 규정에 따라 원고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²³⁾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성근이 기록한대로 『대한력스』 초판이 1906년 출판되었다더라도 헬버트 시리즈로 편입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먼저 준비되어 있던 다른 시리즈 교과서들의 인쇄가 이루어지고 나서 순차적으로 발행되기까지 2년쯤 소요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⁴⁾

이렇게 우리는 오성근의 일기를 통해 이 책의 저술 주체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간 있었던 일부 주장과 달리 『대한력스』는 오성근이 초고를 편찬하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헬버트의 부탁으로 성사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를 저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오성근이 어떤 자료를 저본 삼아 초고를 편찬 및 역술했다는 것 인지가 확실치 않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실제 문헌을 대조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3. 『대한력스』와 헬버트의 『한국사』

헬버트는 잘 알려진 인물이므로 소개는 생략하고, 대신 그의 『한국사』에 관한 최근 연구성과를 일부 소개한다.²⁵⁾ 그간 헬버트가 『한국사』를 쓰기 위

22) 이고은, 앞의 논문, 2023, 270쪽.

23)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06*,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7, p. 11.

24) 『대한력스』(1908)는 급하게 인쇄되었는지 식자오류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제3권 「삼국기」의 광곽 바깥쪽 책 권수 표기가 “테삼”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데이”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4권이어야 할 신라기가 “권지삼(卷之三)”으로 인쇄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오성근, 헬버트, 앞의 책, 89쪽.

25) 헬버트와 한국사에 대해서는 이영미, 「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한국 연구 - 클레런스 워스 2세와 『헬버트의 한국사』(1962)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21-25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해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또는 기존 한국 사서와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²⁶⁾ 이 점에서 최근 소요한이 헐버트의 『한국사』와 『동사강요』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헐버트의 『한국사』 서술에서 동사강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덕분에 중화사상을 비판하는 틀을 마련했고, 한국의 고유함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²⁷⁾ 반면 헐버트의 한국사를 상세하게 주해하여 『헐버트의 한국사』(*Hulbert's History of Korea*)를 편집했던 클라렌스 위스는 헐버트가 고대사 서술에 활용했다는 『동사강요』에 사용된 자료들(『동국통감』, 『동사찬요』, 『동사회강』, 『동사보유』)이 모두 조선시대(15세기 이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⁸⁾ 헐버트가 한국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문 자료를 소화해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당시 서양인으로서는 상당한 업적이지만, 참고자료의 성리학적 편견을 비판 없이 수용했고, 연속성 없는 사건을 나열하게 된 점이 한계라는 것이다. 사실 헐버트의 『한국사』에 사용된 자료와 다른 역사서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건 무척 까다로운 작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더 축적되어 그의 한국사 관련 저술을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헐버트의 『한국사』와 『대한력스』를 비교해보면 시대 구분과 구성 체제, 서술 방식에서 차이가 보인다. 먼저 두 책의 체제와 시대 구분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 <표 2>를 제시한다. 헐버트는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썼으므로 연대를 표기할 때 서력(西曆)만 사용한 반면 『대한력스』는 한국, 중국, 일본의 연호와 서력을 모두 표기했는데, 두 책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표 2>의 기준을 서력으로 했다.

26) 김동진은 헐버트 자료에 근거해 헐버트의 *History of Korea*가 “조야회통, 연려실기술, 국조편년, 동국문헌비고 등을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책들을 심도있게 파헤친 것으로 보인다”(김동진, 앞의 책, 2019, 211-212쪽)고 했지만 실제 문헌을 비교하며 관련성을 비교한 것은 아니다. 장계용도 18-20세기 서양인들이 저술한 한국사 문헌 중 하나로 헐버트의 한국사를 연구하여 저술에 참고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실제 문헌을 대조한 것은 아니었다.

27) 소요한,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선교사의 한국사 연구 - 새로 발굴된 동사강요(東史綱要)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0, 한국대학선교학회, 2016, 103-124쪽.

28) Homer B. Hulbert, Clarence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1962, pp. ED 74-75.

〈표 2〉 『대한력스』와 헐버트의 『한국사』 (3부 중 1,2부) 체제 비교

대한력사				History of Korea		
책	권	시기	도입부	Part	장	시기
상	1	단군조선기(B.C. 2333-)	단군 원년	1 고대	1	단군
	2	마한기 (B.C. 193-)	무강왕 원년		2	기자 기준
					3	위만
	3	삼국기 (B.C. 57-) (부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마한 원왕 2년 신라 혁거세 원년		4	예맥, 옥저, 읍루, 말갈, 여진
					5	기준과 삼한
					6	세 왕국(신라, 고구려, 백제)
					7	A.D. 1-45
					8	A.D. 45-300
					9	A.D. 300-475
					10	A.D. 475-589
					11	A.D. 590-645
					12	A.D. 645-668
					13	A.D. 668-890
				4	신라기 (A.D. 669-935)	신라 문무왕 8
	5	고려기 (A.D. 936-)	태조 신성왕 19년	2	고려 A.D. 935-1010	
	6	고려기 (A.D. 1171-)	명종광효왕 원년	3	A.D. 1010-1070	
				4	A.D. 1070-1175	
	7	고려기 (A.D. 1260-1392)	원종순효왕	5	A.D. 1175-1232 (1175년-첫번째 몽골침략)	
				6	A.D. 1232-1258	
				7	A.D. 1259-1274	
				8	A.D. 1275-1325	
				9	A.D. 1329-1360	
				10	A.D. 1361-1366	
				11	A.D. 1366-1376	
				12	A.D. 1377-1387	
				13	A.D. 1388-1392	

이처럼 두 책은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헐버트는 한국의 역사를 1부 고대(단군-통일신라)와 2부 중세(고려) 각 13장으로 구분하는 반면, 오성근은 단군-마한-삼국-통일신라-고려 7권으로 구분했

다. 워스는 헐버트가 서양사에서 빌려온 고대-중세-근세의 삼분법을 기준으로 한국사에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보았다.²⁹⁾ 한국의 긴 역사를 나누어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 될 수는 있지만 그 내용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도 워스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대표적 사례로 헐버트가 기원후 890년을 고대(Ancient)-중세(Medieval) 전환기로 삼으면서 중세 고려가 시작되는 2부 1권 앞머리에 궁예와 견훤 이야기를 배치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오성근은 새로운 국가의 등장과 왕위 계승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대한력스』에서 신라-고려로의 전환은 935년을 기점으로 설정했고, 태조신성왕(왕건)의 업적으로 고려기를 시작하면서 왕건의 지도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두 책에 보이는 시대 구분의 차이는 역사관이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력스』의 시대구분은 대한제국 선포 후 발행된 계몽기 사서들이 대체로 수용했던 마한정통론을 따른 것이다. 단군조선을 정통왕조로 역사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상고 때부터 정치, 문화적으로 중국과 대등한 국가였음을 입증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쓰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의 저술 시기가 대한제국 수립 직후, 즉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으로 서려는 때였음이 중요하다. 오성근의 『대한력스』는 제목이 시사하듯 중국의 변방, ‘동국’ 또는 ‘대동’으로 조국을 보던 중화주의 사관을 벗어나 신생 제국의 정통성을 강조해야 했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외세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덜어내야 했다. 반면 헐버트는 동아시아 관점에서 한국사를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며 위만과 예맥, 옥저, 읍루, 말갈, 여진족을 한국 고대사에 포함시켰고, 중세 고려사를 기술할 때도 몽골 침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워스도 지적한 바, 헐버트가 1900년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 『트랜잭션』(Transactions)에 기고했던 글에서는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독립성을 강조했었는데, 1905년의 『한국사』에서는 그때와 달리 중국과 외국의 영향을 인정한다고 했다.³⁰⁾

29) Hulbert, Homer B.,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2 Vo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pp. ED66-67.

중국의 영향력도 인식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성도 이야기하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두 책은 한국사를 서술하는 방식도 다르다. 헐버트는 한국을 잘 모르는 서구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단군 설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History, 1-2), 유화부인이 낳은 알에서 태어난 주몽, 견훤이 아기일 때 호랑이 젖을 먹어서 성정이 사나워졌다는 등(History, 128) 등 신화적 이야기를 다수 언급한다. 이에 대해 김권정은 “헐버트의 한국사는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잊고 있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건들을 풍부한 표현력으로 소설처럼 서술하여 독자들에게 읽는 재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³¹⁾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최근 헐버트의 『한국사』를 국역한 책 제목도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이다.³²⁾ 반면 오성근의 『대한력스』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왕위 계승, 업적, 영토 등 역사적 사실만을 연대별로 기술하는 데다 신화적 요소를 상당수 제거하여 “읽는 재미”나 “드라마”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대한력스』에 보이는 역사 서술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두 책은 같은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위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헐버트는 위만이 기원전 193년 기자조선의 준왕을 배반하고 평양 궁궐로 진격해 기자조선을 무너뜨린 사건이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위만을 “주변 부족의 존경과 경외감을 이끌어낼 힘이 있는” 지도자였으며 “고삐를 당길 때와 풀어줄 때를 잘 아는” 정치 감각이 탁월했던 인물로 묘사한다.³³⁾ 반면 『대한력스』는 위만을 오랑캐이자 간사한 변절자, 역적으로 깎아내린다. 이처럼 위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역사를 정통-비정통으로 구분했던 성리학 사관과 당대 정황 때문이다.

30) Hulbert, Ibid., pp. ED65-66.

31) 김권정, 앞의 책, 61쪽.

32) 헐버트 저, 마도경, 문희경 역,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전2권), 리베르, 2009.

33) “So long as Wi-man lived he held the kingdom together with a strong hand, for he was possessed of that peculiar kind of power which enabled him to retain the respect and esteem of the surrounding tribes. He knew when to check them and when to loosen the reins.”
Hulbert, Ibid., p. 16.

성리학 사관으로 볼 때 위만은 비정통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찬적(僭賊), 즉 “정통왕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지역에 거하며 참람하게 호칭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례였다.³⁴⁾ 『대한력스』에서 이 사건을 기술하며 덧붙인 주에 위만을 향한 비판적 관점이 잘 드러나므로 아래에 인용한다.

“임금이 충성으로 간하는 말을 들으면 국가가 흥하고 망령된 아첨을 믿으면 국가가 망한다. 왕이 단통의 충간을 듣지 않고 망로[위만을 말함-필자 주]의 아첨을 기뻐하며 변방을 지킨다는 계교에 빠져, 선왕의 강토를 버리고 호랑이에게 주어 그 씹을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화를 일으켜 몸이 황무지에 쫓겼으니, 후세의 어리석은 임금은 이것으로 명감[귀감-필자 주]을 삼을지니라.”³⁵⁾

이처럼 대강 살펴보아도 두 책은 체제와 시대구분, 역사관, 서술방식, 그로 인한 인물평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오성근의 『대한력스』가 헐버트의 『한국사』를 번역한 것이라는 주장은 재고가 필요하다.

4. 『대한력스』와 정교의 『대동역사』

역사학자 조동걸이 관찰한 대로, 『대한력스』는 정교의 『대동역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여기서는 우선 정교라는 인물과 그의 책 『대동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대한력스』와 비교할 것이다.

정교는 서울에서 태어난 대한제국 중견 관료였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는 등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개화운동가이자 애국계몽운동가였다.³⁶⁾ 그의 가계나 사승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아 양반이었지만 넉넉지 못했으며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이다.³⁷⁾ 『대동역사』

34) 이시영, 「鄭喬의 『大東歷史』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4쪽.

35) 오성근, 호머 헐버트, 『대한력스』, 조선성교서회, 1908, 24쪽.

36) 정교에 대한 소개는 배항섭, 「鄭喬의 관직경력과 사회활동」,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전통지식인의 대응과 새로운 사상의 형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이시영, 앞의 논문, 10-13쪽을 참고했다.

(1906) 외에 『대한계년사』(1913) 등 역사 관련 저술이 있다.³⁸⁾ 독립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다가 1898년 체포되어 재판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추원의관, 시종원 시종이라는 관직에 임명되기도 했다. 같은 해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아펜젤러의 집과 배재학당으로 피신해 살았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해서야 귀가했다.³⁹⁾ 1906년 1월 학부대신 이완용의 추천으로 학부 참서관, 2월에는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장을 겸임했으나 얼마 후 이완용과 사이가 나빠져 곡산군수로 좌천되었다. 같은 해 여성교육기관 양규의숙을 설립 및 운영하였으며 여자교육회를 발기했고, 1906년 9월 대한자강회 평의원, 1908년 대한협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관직 생활을 그만둔 이후, 특히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친일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⁴⁰⁾ 1910년 합방 후 전주로 내려가 은거하다가 1925년 이리(전라북도 익산)에서 70세에 사망했다.

정교가 저술한 『대동역사』는 단군-통일신라기를 포함하며, 삼국기를 기준으로 상(1-5권, 초고본)과 하(6-12권)로 나뉜다. 흔히 1905년에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발행시기는 1906년 8월 이후이다. 이 책에 포함된 여러 서문 중 가장 늦게 쓰인 것이 광무 10년 8월이기 때문이다. 정교가 쓴 서문에 의하면 초고본(단군-마한기)은 1896년 완성되어 필사본으로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읽혔고, 이후 삼국기-통일신라기를 추가해 활자인쇄본으로 완성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한다.⁴¹⁾ 원래 초고본은 최경환이 쓰고 정교가 교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동걸에 의하면 정교가 초고본 저술에도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초고본은 1898년 출판될 계획이었으나 저술 관여 인사들이 독립협회와 연관되고 내용상 자주성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학부대신 신기선이 저지했다고 한다.⁴³⁾ 이처럼 상하 두 책이 시차를

37) 배항섭, 앞의 책, 137쪽.

38) 이시영, 앞의 논문, 13쪽에 정교의 저술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9) 배항섭, 앞의 책, 145-146쪽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다.

40) 배항섭, 앞의 책, 162쪽.

41) 정교, 『대동역사』, 민족문화사, 1987, 서문.

42) 조동걸, 앞의 책.

43) 이시영, 앞의 논문, 6, 18쪽.

두고 저술되었기 때문에 상책 5권 끝(마한기 종)에 발문이 있으며, 6권이 시작되는 부분에 또 다른 서문과 범례가 수록되어 있다.⁴⁴⁾

『대동역사』의 서술체제는 역사적 사실(綱)과 경위(目)를 서술하는 강목(綱目) 형식으로,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여 서술을 차별화함을 범례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는 성리학적 역사관으로, 정교가 유학을 고수하면서 서구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던 동도서기론자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⁵⁾ 예를 들어 정통국에는 단군조선, 기씨조선, 마한이 해당되고 비정통으로는 참국(신라, 고구려, 백제), 열국(부여, 옥저), 외국(중국, 일본), 소국, 찬적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⁴⁶⁾ 거기다 정통은 국가 명칭과 왕이 사망한 뒤 받는 시호(諡號), 연대(紀年)를 큰 글씨(大書)로 썼다(그림 3 참고). 게다가 정통의 군주(단군조선, 기씨조선, 마한)들은 ‘왕’이라 부르고, 사망 시에는 ‘붕(崩)’으로 표기한다. 반면 참국의 지도자는 ‘군(君)’이라고 하며, 사망시 ‘졸(卒)’이라 했다. 이러한 위계적 서술방식은 역사에서 정통을 밝히고 찬편을 바르게 하여 대의명분에 충실히 한다는 성리학적 이념을 반영한 서술방식이며,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다.⁴⁷⁾

정교는 본문에 안(按)과 사론(史氏斷), 정의(正義)를 덧붙여 역사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안은 국내외 사료를 통한 사실 고증과 분석이고, 사론은 정교 자신의 주관적 의견이며, 정의는 사실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포폄(褒貶)이다. 정교는 <동국통감>을 “김씨의 역사 기록”이라 하고, “고대 기록에

44) 마한기 끝부분에 발문이 다섯 편 있는데 첫 번째를 쓴 최병헌이 감리교 목사 최병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 요, “光武九年乙巳四月 完山崔炳憲端拜 謹書于皇華精舍”.

45) 이시영, 앞의 논문, 14쪽.

46) 정교, 앞의 책, 11-16쪽. 이 책의 범례(凡例)는 오성근의 『대한력서』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아래 일부를 인용한다.

“참국(僭國)이란 영토를 점유하고 왕을 자칭한 자들(예: 신라, 고구려, 백제)을 포함한다.

열국(列國)이란 부여와 옥저 등 나라를 말하며, 그 건국과 역대 사건은 옛 역사(舊史)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사건이 드러난 정도에 그친다.

외국(外國)이란 동방 영역 밖의 여러 나라들(諸國)로 (예: 중국의 하, 주, 진, 한과 열국의 노, 제, 연 등) 그 건국과 역대 사건은 이미 중국(支那) 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 드러난 정도에 한한다 (일본도 이와 동일하다).

소국(小國)이란 비류(沸流)와 행인(衍人) 등의 나라를 말한다 (열국의 예와 동일하다).

찬적(纂賊)이란 영토를 점유하고 호칭을 도용한 자들을 말한다 (예: 위만 등).”

47) 이시영, 앞의 논문, 23쪽.

만 의존하여 단편적 전승과 오류투성이의 기록으로 허술하고 왜곡된 바가 많아 전혀 역사적 규범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하는데, 사대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주체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술 동기도 “정통이 없는 상태에서 정통을 바로잡고, 과거의 부당한 오해와 오류를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⁴⁸⁾ 정교의 『대동역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역사연구성과를 크게 참고하여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도입하고, 단군을 포함하는 마한정통론에 입각해서 고대사를 서술했다. 하지만 그의 자주독립 사상은 한계가 있었다. 을사조약 이후에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와 잇몸이 서로 돕는 형세로 기술했기 때문이다.⁴⁹⁾

오성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교의 『대동역사』를 활용하여 『대한력스』를 편찬 역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한 추측으로는 1901년부터 험버트의 제자가 되었던 오성근이 험버트를 통해 정교에게 연결되어 『대동역사』를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교가 독립협회 간부였으므로 윤치호, 서재필 같은 기독교 개화와 운동가들과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대동역사』의 초고가 완성되어 인쇄를 준비했던 1898년에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아펜젤러의 집과 배재학당으로 피신해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지냈다는 점⁵⁰⁾을 고려하면 험버트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당시 험버트가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를 담당하면서 독립신문 발행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사에 큰 관심을 가졌고 역사 관련 저술이 많았던 것을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대한력스』와 『한국사』를 대조하며 보았듯 두 사람의 책에서 보이는 역사관은 상당히 다르다. 어쨌든 험버트가 오성근에게 『대한력스』 저술을 부탁했던 배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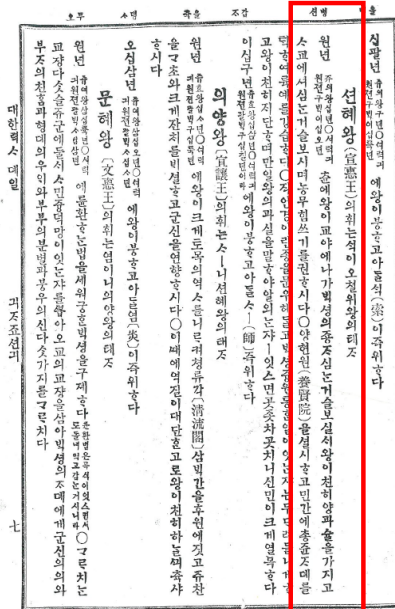
이제 『대한력스』와 『대동역사』 두 책을 비교해보자. 먼저 주목할 만한 것

48) 정교, 앞의 책,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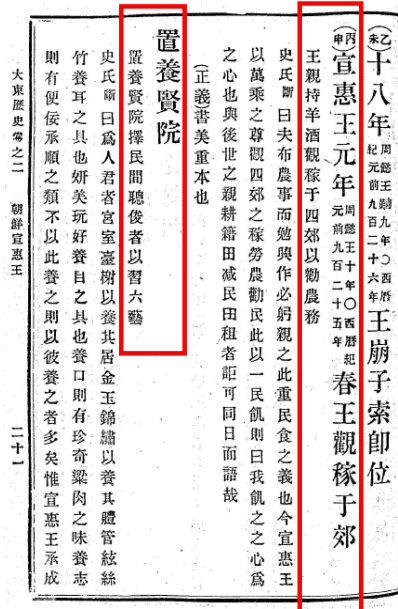
49) 이시영, 63쪽.

50) 배향섭, 앞의 책, 145-146쪽; 이시영, 12쪽.

은 『대한력스』가 『대동역사』의 연대 표기를 그대로 따른 점이다. “00왕 원년,” “00왕 00년” 같은 한국사 연대 아래에 작은 글씨 두 줄로 외국(중국의 당, 우, 하, 주, 진, 한 및 일본과 서구)의 동시대 연대를 기록해 동서양 연대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그림 3, 4 참고). 건국 순서를 따라 먼저 중국, 제국 다음에 일본을 기록하고, 그 뒤에 서양 연대(서력)를 기록하는 식이다. 강명희는 『대한력스』에서 보이는 연대 표기 방식이 “당시 다른 국사교과서들과 달리 매우 국제적인 편찬자의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는데,⁵¹⁾ 다만 그 안목이 험버트가 아닌 정교의 것이었다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3〉『대한력스』 본문 일부



〈그림 4〉『대동역사』 본문 일부

51) 강명희, 앞의 책, 50쪽.

조동걸의 평가대로, 『대한력스』와 『대동역사』 두 책은 대강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한력스』는 『대동역사』의 큰 글자(大書) 부분, 즉 정통의 역사만 추려서 번역했다. 이것은 위 그림 3, 4에서 네모 표시한 부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외에 사씨단(史氏斷, 정교의 견해)과 정의(正義, 사실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포럼) 같은 주관적 기술들은 거의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성근과 그의 동료들이 왕위 계승과 영토, 업적 같은 역사적 사실에만 집중했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정교의 안(按)에 해당되는 부분, 즉 국내외 사료를 통한 사실 고증과 분석 일부를 옮기되 그 명칭을 주(註)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⁵²⁾

두 책의 차이는 마한기-삼국기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우선 마한(馬韓)이라는 이름에 대해, 『대한력스』는 그 명칭이 중국 역사가들 때문에 잘못된 것이므로 ‘마한(摩韓)’이라 정정했다고 주를 달았다. “사기에 일렀으되 마한이란 뜻은 삼한을 무마하는 뜻이어늘 지나[중국] 사씨(史氏) 전에 그릇 마한(馬韓)이라 한 고로 이에 옛 사기를 좇아 마한(摩韓)이라 하노라.”⁵³⁾ 반면 『대동역사』는 ‘馬韓’이라는 이름 표기가 중국사가들의 잘못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록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다 하였다.⁵⁴⁾

52) 강명희는 『대한력스』의 주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개했다. 강명희, 앞의 책, 43쪽.

53) 오성근, 호머 헐버트, 앞의 책.

54) 정교, 앞의 책, 123-125쪽.

〈표 3〉 『대한력스』와 『대동역사』 체제 비교

대한력사				대동역사			
책	권	시기	도입부	책	권	시기	도입부
상	1	단군조선기 (B. C. 2333-)	단군 원년	상	1	단군조선 (B. C. 2333-)	단군 원년
					2	후조선기 (B. C. 1122-)	조선 태조문성왕 원년 (기씨조선)
	2	마한기 (B. C. 193-B. C. 59)	무강왕 원년- 원왕 원년		3	후조선기 (B. C. 658-)	조선 천로왕 원년
					4	마한기 (B. C. 193-B. C. 33)	마한 무강왕 원년
	3	삼국기 (B. C. 57-) (부마한 신라 고구려 백제)	마한 원왕 2년 신라 혁거세 원년		5	마한기 (B. C. 32-A. D. 9)	마한 계왕 원년
				하	6	삼국기 (A. D. 10-)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남해왕 6 고구려 유리왕 38 백제 시조왕 28
					7	삼국기 (A. D. 185-)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벌휴왕 원년 고구려 고국천왕6 백제 초고왕 19
					8	삼국기 (A. D. 357-)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내물왕 원년 고구려 고국원왕26 백제 근초고왕 11
					9	삼국기 (A. D. 517-)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법흥왕 3년 고구려 문자왕 26 백제 무령왕 16
					10	삼국기 (A. D. 634-)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선덕왕 원년 고구려 영류왕 16 백제 무왕 34
	4	신라기 (A. D. 669-)	신라 문무왕 8 “통일하기 전 7년은 삼국기에 부치다”	11	신라기 (A. D. 669-)	신라 문무왕 8	
				12	신라기 (A. D. 840-935)	신라 문성왕 원년	
	5	고려기 (A. D. 936-)	태조 신성왕 19년 (후백제 멸망후 통일)	없음			
	6	고려기 (A. D. 1171-)	명종광효왕 원년				
	7	고려기 (A. D. 1260-1392)	원종순효왕				

두 책의 시대 구분도 마한기 뒷부분부터 조금씩 달라지는데, 시대를 나누는 시점과 사건을 배치하는 순서가 다르다. (표 3 참고). 그 이유는 두 책이

마한기를 서로 다른 시기에서 나누고, 그것을 삼국기와 연결시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력스』에서는 마한기가 2권에 해당하는데, 종료 시점이 B.C. 59년(원왕 원년)이다. 2권 마지막에 “마한개국이래 무강왕 원년 무신으로부터 원왕 원년까지 합 137년은 마한기에 속하고 원왕 2년부터 왕학 25년 기사까지 합 65년은 삼국기에 붙이노라”고 주를 달아 설명해두었다.⁵⁵⁾ 즉 마한의 후기 65년은 “부마한기”로서 3권(삼국기)으로 넘기는 것인데, 왜 그렇게 나누고 넘겼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대동역사』에서 마한기는 4, 5권에 해당되며, 4권 종료 시점이 B.C. 33년(마한 원왕 26년), 임나-일본의 외교가 시작된 사건이다. 이어지는 마한기 후반 5권의 시작은 B.C. 32년(마한 계왕 원년)이고, 신라가 금성에 궁궐을 짓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대한력스』에서는 이 사건을 삭제했다.) 5권의 종료 시점은 A.D. 9년(왕학 25년)이다.

이어지는 삼국기에 대한 서술도 두 책의 접근방식이 다르다. 『대한력스』에서 삼국기는 3권에 해당되는데, B.D. 57년 신라 시조 혁거세가 알에서 탄생했다는 설화로 시작한다. 아마도 오성근이 삼국기에서 신라를 정통으로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반면 『대동역사』의 삼국기는 6권부터 시작되며 그 시점이 A.D. 10년으로, 『대한력스』의 삼국기보다 67년 늦다[병신년 남해왕 6년, 고구려 유리왕 28년, 백제시조왕이십년, 서력십년]. 게다가 백제 왕이 장자 다루를 태자 삼은 사건을 가장 앞머리에 서술한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다.

『대한력스』 4권의 통일신라기에 대한 서술도 1, 2권에 비하면 『대동역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다. 『대동역사』는 참국 고구려의 지도자 안승도 역대에 포함시키지만, 『대한력스』는 안승의 연대를 생략하고 중국(당), 일, 서력만 기록했다. 특히 『대한력스』는 신라가 당과 연합해 통일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국내 사건에만 국한해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12년에 김유신이 사망한 일, 새 책력을 사용한 일, 왕이 궁안에 정원 가꾼 일만 기록하고, 외세

55) 오성근, 호머 힐버트, 앞의 책, 33쪽.

침략 부분(12-14년 사건들)은 생략한 반면 15년 신라 장수가 당나라 장수 설인귀와 싸워 이긴 것은 포함했다. 그리고 『대동역사』의 16-19년 기사는 또 생략되었다. 이 외에도 『대동역사』는 새 왕이 즉위할 때 당시 길흉을 암시 하던 유성, 혜성에 관한 기사를 대서로 기록했지만 『대한력스』에서는 생략한 점도 눈에 띈다.

이로 보아 오성근은 『대한력스』 1-2권을 『대동역사』 초고본(상책, 즉 단군조선-마한기)에 기초해 원문의 순서와 내용 전개에 가깝게 편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권부터는 『대동역사』 하책(나중에 정교가 덧붙인 부분, 즉 삼국기)을 참고하되 조금 더 주체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본인의 견해에 맞게 수정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의 이름으로 유통된 『대동역사』 초고가 1890년대 당시 필사본으로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공유되었다는 사실, 이 초고에 삼국기를 추가한 활판본이 1906년에 발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오성근이 그보다 앞선 1902년에 이미 “대한력사 22권을 편찬했다”고 기록한 점을 고려해볼 때, 오성근이 주로 참고했던 것은 필사본 초고가 아니었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대한력스』의 5, 6, 7권에 해당되는 고려기(高麗記)를 어떤 자료에 의지해 편찬했는지 밝히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⁵⁶⁾ 이것은 향후 다른 연구자들, 특히 사학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56) 이를 위해 헐버트가 고려사 저술에 참고했다는 『동사강요』와 『대한력스』의 ‘고려기’의 앞부분을 비교해보았으나 다소 차이가 있어 보였다. 두 책 모두 고려 태조신성왕 19년(936)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첫머리에 오는 사건들이 다르다. 『동사강요』는 2월에 견훤의 사위 박영규(朴英規)가 아내와 나누는 대화로 시작하고, 『대한력스』는 9월에 견훤의 아들 신검이 항복하고 후백제가 망하는 사건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동사강요』는 왕건이 신검을 공격하는 과정을 세 쪽에 걸쳐 매우 자세히 서술하는 반면, 『대한력스』는 그 사건을 반쪽짜리 한 문단으로 정리한 뒤 곧바로 이듬해로 넘어간다. 두 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은 대한제국시기 역사 교과서 『대한력스』의 저본과 저술 주체에 대한 이설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자료와 실제 문헌에 기반하여 사실을 검증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험버트 자료와 오성근의 일기를 통해 이 책의 저술을 실제 담당했던 것이 오성근과 윤태무, 윤태영, 홍준 같은 동료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2장에서는 『대한력스』를 험버트의 『한국사』와 비교하여 시대구분과 서술방식, 인물평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3장에서는 『대한력스』를 정교의 『대동역사』와 비교하여 유사성과 약간의 차이를 논하고, 두 책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여러 문헌을 비교하느라 논문이 다소 복잡하게 되었지만, 위의 분석과 오성근의 일기, 그리고 『대한력스』 서문에 남긴 기록을 종합해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자. 오성근은 최경환과 정교가 저술한 『대동역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한력스』 4권까지 해당하는 한문 초고를 ‘편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순한글로 ‘역술’했다. 저술 시기를 고려하면 『대동역사』활판본(1906)보다 초고본을 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7권은 어떤 자료에 기초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력스』의 저자가 험버트라거나, 이 책이 험버트의 영문 『한국사』를 번역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역사가로서 험버트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재고할 필요도 제기된다. 험버트의 『한국사』가 국내외에서 중요한 문헌인 것은 학계에서 두루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저술에 있어서 그의 역할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문 역사서 『대동기년』에 대해서도 엄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세 권의 역사서를 대강 거칠게 비교했을 뿐 그 내용을 심도있게 비교 고찰하지 못한 점이 한계이다. 특히 정교의 『대동역사』가 오성근의 『대한력스』와 어떻게 다른지, 오성근이 정교의 책에서 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렸는지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두

책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차이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화기 문헌에 내재하는 중층성에 대해, 또한 다양한 인물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험버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오성근이라는 인물의 활동에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간 서양인들의 저술, 번역, 출판 활동에서 한국인들의 숨은 역할을 주목하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자료가 부족한 탓에 연구가 부족했는데, 그의 일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듯하다. 오성근이 『대한력스』 외에 『대한삼십년외교사』 저술에도 관여했고, 김규식과 함께 동지문예관을 설립하는 등 험버트가 떠난 후에도 활발한 행적을 보인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 C.C.Han, "Prospects of the Christian Literature Movement," *Korea Mission Field* (July 1930): 147-149.
- Hulbert, Homer B.,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2 Vo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The Tract House, 1911.
- _____,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06*,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7.
- 대한제국관보 제 2111 호 “中學校學年試驗 優等,” 光武五年十月七日 月曜 (1901년 10월 07일).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역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142>
- 오성근, 호머 헐버트, 『대한력스』, 발행자불명, 1908.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오성근, <오성근일기초>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 위키피디아 “Harold Rugg” https://en.wikipedia.org/wiki/Harold_Rugg
- 정교, 『대동역사』, 민족문화사, 1987.

2. 저서

- 김권정,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 역사공간, 2016.
- 김동진, 『파란논의 한국흔 헐버트』, 참좋은친구, 2010.
- _____,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2019.
- 배항섭, 『鄭喬의 관직경력과 사회활동』,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전통지식인의 대응과 새로운 사상의 형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 이장식, 『대한기독교서회 백년사』, 대한기독교서회, 1984.
- 장재웅, 『이방인의 한국사 인식과 서술』, 경인문화사, 2019.
- 조동걸, 『우사 조동걸 전집』 14, 역사공간, 2011.
- 헐버트 저, 마도경, 문희경 역,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전2권), 리베르, 2009.

3. 논문

- 강명희, 『韓末『대한력스』의 分析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소요한,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선교사의 한국사 연구 - 새로 발굴된 동사강요(東史綱要)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0, 한국대학선교학회, 2016, 103-124쪽.
- 여인화, 『大韓帝國 時期 官立中學校의 敎育實態』,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989, 27-43쪽.
- 이고은,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배경과 전모』, 『대동문화연구』 제1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3, 255-284쪽.
- 이시영, 『鄭喬의 『大東歷史』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영미,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1901~1906) 연구』,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135-162쪽.
- _____, 『미국인 선교사 자녀들의 한국 연구 - 클라렌스 윈스 2세와 『헐버트의 한국사』(1962)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9-36쪽.

Issues of Authorship and Source Text in the History Textbook *Daehan Ryeoksa*(1908)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Goeun Lee*

This study examines conflicting theories regarding the authorship and source text of *Daehan Ryeoksa* (1908), a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Covering Korean history from the Dan'gun period to the Goryeo, it was the only history textbook written entirely in han'geul after the 1905 Protectorate Treaty and was designated Hulbert Textbook Series No. 1 upon publication. Regarding its authorship and source text, two competing theories exist: one attributes the book to Homer B. Hulbert, who entrusted its compilation and translation to his student O Seong-geun, linking it to Hulbert's *History of Korea* (1905); the other argues it is a Korean translation of Jeong Gyo's *Daedong Yeoksa*(1906) originally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This study verifies these claim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primary sources. Chapter 1 explores authorship based on Hulbert's correspondence and O Seong-geun's Diary. Chapter 2 contrasts *Daehan Ryeoksa* with Hulbert's *History of Korea*, highlighting differences in periodization, narrative style, and historical assessment. Chapter 3 examines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Daedong Yeoksa*, offering new insights into its origins.

Key words : O Seong-geun, Homer Hulbert, *Daehan Ryeoksa*,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history textbook

논문투고일 : 2025년 1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18일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